

제1절 덕양구

1. 주교동

1) 이무(李茂) 묘 및 신도비 (제2권 문화유산, 향토유적편 참조)

2) 이무(李茂) 영모재

주교동 '영글이'에 있는 단산부원군 이무(李茂)의 재실이다. 고종 17년(1880)에 중건된 이 건물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는 한옥 기와집이다.

한편 재실 안에는 중건 당시 조찬(曹燦)이 쓰고, 이경욱(李敬煜)이 찬한 상량문과 후손 이기배(李淇培)가 쓰고 이효식(李孝湜)이 새긴 영모재중수기가 있다.(『고양군지』(1987) 참조)

3) 주교동 느티나무 (제2권 문화유산, 보호수편 참조)

4) 박충원(朴忠元) 묘 (제2권 문화유산, 향토유적편 참조)

5) 박계현(朴啓賢) 묘

이 묘는 주교동 능골 마을 밀양 박씨 선산 묘역 내에 정부인 선산 김씨의 묘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봉분은 높이 220cm, 둘레 각 15m의 규모인데 아랫부분에 봉분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돌레석이 둘러 있다. 봉분의 정면 앞에는 화강암 재질의 상석, 향로석, 혼유석이 있고 봉분 좌측에는 화강암과 대좌, 옥개석과 오석의 비



▶ 이무 신도비



▶ 박계현묘

신을 갖춘 묘비가 있다. 또 상석 앞으로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장명등이 세워져 있는데 장명등의 화창은 모두 4개이며 기단과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좌,우 망주석에는 석수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서로 연결된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문인석은 조선조 중,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계현[중종 19년(1524)~선조 13년(158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 자는 군옥(君沃), 호는 관원(灌園)이다. 박광영(朴光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박조(朴藻)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박충원(朴忠元)이다. 조성(趙晟) 형제의 문인이다.

중종 38년(1543) 진사가 되고, 명종 7년(1552)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 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보임되었고 곧 예문관 검열과 정자 등을 역임하였다. 1555년 사가독서하고, 곧 부수찬을 지냈다. 그 해 을묘왜변으로 경상도 평사가 되어 유장을 기르는 책임을 맡았다. 이어 수찬을 거쳐 병조와 이조의 좌랑을 지내고, 1556년 서장관이 되어 동지사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1558년 이조정랑을 거쳐 홍문관 부교리·의정부 검상·사인 등을 역임하고, 사헌부 장령·교서관 교리를 겸하였다. 그 뒤 성균관 직장을 지내고 승문원 참교가 되었다. 1559년 장단부사가 되었을 때에는 치적이 많았다.

그는 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현사로 인정되는 사람만 기용하고 척신들의 추천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권신 윤원형(尹元衡)이 그를 포섭하고자 혼인을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1560년 만포진 병마첨절제사를 시켜 변방으로 내몰았다. 1563년 사간원 대사간에 올랐다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옮겼고, 이어 예조·형조·병조의 참의를 두루 역임하였다.

1565년 도승지, 시약청 제조를 거쳐 한성좌윤이 되었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겨울에 하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곧이어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567년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권발(權撥)·이언적(李彦迪) 등의 신원을 계청했고, 이듬해 호조참판 등을 지냈다.

1573년 예조참판을, 1575년 호남관찰사를 지내고, 1577년 지중추부사와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 동인·서인의 당쟁이 심해지자 이를 걱정해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편서로는 『밀산세고』가 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6) 고려 왕씨 묘(高麗王氏墓)

묘는 주교동 능골마을 밀양 박씨 묘역 내에 있다. 조선시대 묘로 알려진 이 봉분의 높이는 169cm, 총 둘레는 20m이다. 봉분 바로 앞에는 화강암 기단이 축조되어

있다. 봉분 좌측에는 대좌(臺座), 옥개석(屋蓋石), 오석(烏石)의 비신 등이 갖추어진 묘비가 세워져 있다. 비의 앞면에는 '증정경부인 고려왕씨지묘(贈貞敬夫人高麗王氏之墓)'라 기록되어 있다. 또 좌측 측면에는 '증좌찬성 밀산군 박절문배(贈左贊成密山君朴切問配)'라 표기되어 있다. 봉분 정면앞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상석(床石), 고석(鼓石), 향로석이 있으며 그 우측에 오석(烏石)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상석이 있다.

상석 앞쪽 3m 지점에는 높이 154cm의 장명등이 있는데 재질은 화강암이며 화창(火窓)은 모두 4개이다. 기단은 옥개석에 비해 좁은데 화창은 전체적인 몸체에 비해 큰 편이다. 옥개석은 육각 모양으로 특별한 문양이나 조각은 보이지 않는다.

장명등 좌·우에는 높이 136cm, 둘레 118cm의 무인석이 세워져 있다. 고려 시대의 석물로 보이는 이 무인석은 전체적으로 왜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양쪽 어깨에서 시작된 두 손은 복부 부위에서 칼을 쥐고 있는데 칼에는 일정한 무늬, 조각 등이 보이지 않는다. 몸체에 비해 얼굴과 머리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분의 뛰어난 곡선미가 이 석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고려 왕씨는 조선조 전기의 문신(文臣)인 박절문(朴切問)(1390~?)의 부인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왕씨는 고려 왕고(王高)의 딸이다.



고려 왕씨묘 무인석

7) 박광영(朴光榮) 묘

묘는 주교동 능골 밀양박씨 묘역에 있다. 봉분 주위의 석물로 상석 1기, 장명등 1기와 무인석 2구가 있으며, 그밖에 묘표와 묘갈이 있다. 대리석의 묘갈은 국화무늬의 두부로, 크기가 폭 2척, 두께 25cm, 높이 5척이며, 또 명종 13년(1558) 7월에 건립된 묘표는 대형의 원형으로 정사룡(鄭士龍)이 지었고 글씨는 정만(鄭漫)이 썼으며 표문에는 '가선대부 형조참판 오위도총부 도총관 밀성군 박광영지묘(密城君朴光榮之墓)'라 새겨져 있다.

박광영(세조 9년(1463)~중종 32년(1537))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 자는 군실이다. 할아버지는 좌참찬 박중손(朴仲孫)이고, 아버지는 예조참의 박미(朴楣)이며, 어머니는 지돈령부사 강석덕(姜碩德)의 딸이다. 1486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98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에 보임되었다. 곧이어 홍문관 박사·봉상시 주부·홍문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504년 정언으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추숭을 반대하다가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서 목천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풀려나서 정언으로 복직되고 이듬해 지평으로 승진, 이어 사인·응교·집의를 거쳐 통례원 좌통례 등을 역임하였다. 1515년

동부승지가 되었고 또 상호군에 임명되었다. 이어 대사간을 지내고 병조 참의가 되었다.

1518년 관압사(管押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뒤이어 돈녕부 도정이 되었다. 뒤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으나 도둑을 토벌하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어 강릉 부사로 임용되었고, 만기가 되자 이조 참의가 되었다. 1528년 좌승지를 거쳐 한성 좌윤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맏형이 아들이 없어 뒤를 잇지 못하므로 그가 습작을 받아 밀성군에 봉해졌다. 그 뒤 하정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532년 공조 참판에 부총관을 겸하고 뒤에 형조 참판이 되었다.

그는 직언으로 대신들의 미움을 샀고, 생원으로 있을 때 나라에서 배척하는 불교를 숭봉했다는 죄목으로 곤장을 맞고 유배되기도 하였다. 또 폐비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유배되는 등 많은 파란을 겪었다. 외교에도 상당한 수완을 가지고 있어 중국을 세 번이나 다녀왔고, 어려운 일들을 끈질기게 처리해 왕의 신임을 받았다.

8) 박사경(朴思敬) 묘

본관은 밀양, 배는 정경부인 전의 이씨이다. 이수, 기단, 대좌를 갖춘 묘비, 화장석으로 된 2기의 묘비[옛비], 상석, 장명등, 4구의 문인석,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고려 추성 익위공신 전법판서 겸 상장군을 지냈다.

9) 박강생(朴剛生) 묘

본관은 밀양, 자는 유지(柔之)(1369~1422), 호는 나산경수. 배 증정경부인 파평 윤씨. 4각의 봉분, 2기의 화장석 묘비, 상석, 혼유석,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 등이 있다. 증승록대부 좌찬성 겸 집현전 부제학을 받았다.

10) 정자숙(鄭自淑:1430~?) 묘

원당동 왕릉골에 중형(仲兄)인 계양공(戒襄公) 묘소의 백호동(白虎洞) 정상에 있다. 벼슬은 통훈대부, 김제군수, 전주진관(全州鎭管) 겸 병마첨절제사,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맡았다.

2. 원당동(元堂洞)